

부모 잘 만나면 세금도 공짜?

copyright 북극성
massaru@freechal.com
출처: <성균> 2001 여름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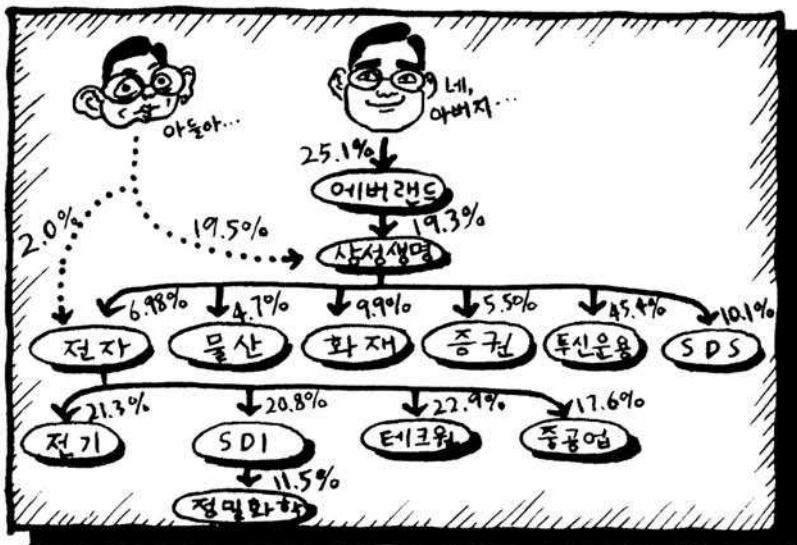
삼성 3세 이재용. 그는 어떻게 44억원으로 4조를 벌었는가?



이재용, 그는 누구인가



이재용 (1968년 6월 23일 생)
삼성그룹 이진희 회장의 장남
재산 : 삼성 에버랜드 지분 25.1%
삼성 SDS지분 10.1%
삼성 투신운용 지분 7.72%
삼성전자 지분 0.77%
추정가치4조원



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
이재용 → 에버랜드 → 삼성생명 → 기타 계열사로
이어지는 소유 구조의 정점에 있습니다.
사실상 삼성의 주인인 거죠.



자, 이 마술의
전모를
하나씩
파헤쳐 드리죠.



1995년 12월, 이건희 회장은 재용 씨에게
64억 8천만 원을 증여합니다.
증여세로 16억 떼고 남은 돈이
44억8천만 원.



이 돈으로 재용 씨는 비상장 기업인
삼성에스원과 엔지니어링 주식을
23억 원, 19억 원어치씩 구입하죠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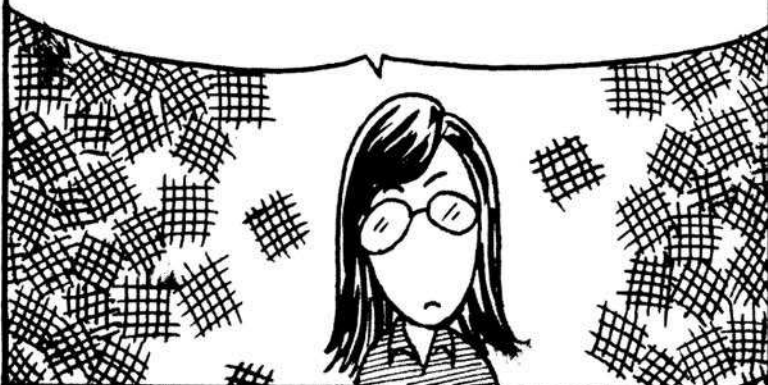
그리고 이 회사들을 곧 상장시킨 다음
주식을 처분해 생긴 돈이
자그마치...



그 다음, 삼성은 이재용 씨 명의로 그룹 내 지주회사
역할을 맡고 있는 에버랜드, 삼성생명, 삼성전자의
지배 지분을 취득합니다.



우선 **에버랜드**는 이 회장의 4남매를 대상으로
자사 지분의 62.5%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
불과 96억 원에 발행해 주죠. (이재용 25.1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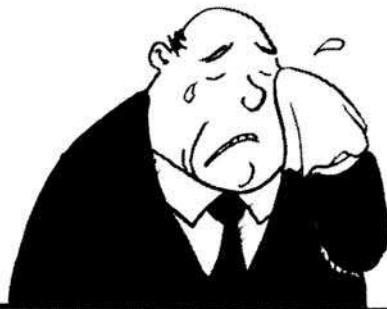
즉, 에버랜드 이사진은 자산 가치 수조 원의
회사 경영권을 '똥값'을 들여 바친 겁니다.



그 다음은 삼성전자.



삼성전자는 이재용 씨에게 거래소 시가의 10% 할인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줍니다. (450억 원어치)



흑흑
이것밖에
못 깎아 드려서
황송...

이걸로 이재용 씨는
이 회사 지분
0.8%를 보유하게 되죠.



그 다음, 삼성생명은



에버랜드 자회사로 편입.
삼성엔 전현직 고위 임원 명의의 삼성생명
주식을 모두 모아...



다 모아!

에이~

주당 9000원에
에버랜드에 넘겨 주죠.



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건희 회장이 6개월 후
삼성생명 주식을 사재 출연하면서 적정가가 주당
70만 원이라 주장했다는 겁니다.



어때?
이만하면
많이 냈지?

똑같은 주식인 아버지가 빚 갚을 땐 70만 원,
아들한테 9,000원으로 계산... 참 나.



어쨌든 이렇게
삼성의 3세 변칙
증여쇼는 막을
내립니다.



죽벌이여, 영원하라!
-제 3부

- 끝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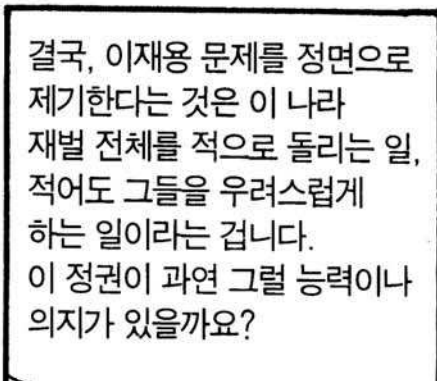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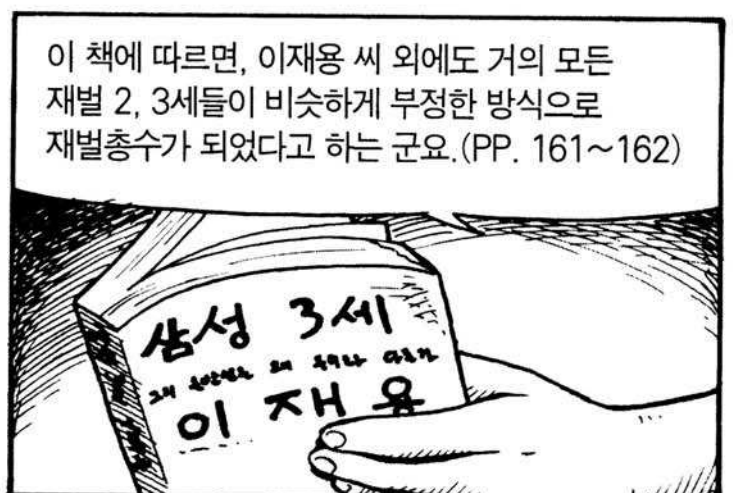
감독: 이건희 연출: 비서실
주연: 에버랜드 등 계열사 사장단
조연: 이재용

이 과정에서
이씨 부자와 삼성이
낸 세금은 애초의
증여세 16억 원이
전부였습니다.



이씨父子는 '도둑'이다!





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지 무려 89일만에 국세청이 이재용 씨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. 하지만 '이재용 문제'라는 엉킨 실타래를 푸는 작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. 이재용 문제는 21세기 한국사회가 재벌공화국으로 살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. ('여는 글'에서) **成均**

